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other's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Conflict on Child's Behavior Problems

하상희*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강사

Sang Hee Ha

Division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ther's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conflict on child's behavior problems.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55 boys and 211 girls and their mothers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by Amos 7.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as follows:

First, mother's self-differentiation had a negative direct effect on marital conflict. Secondly, marital conflict had a direct effect on boy's behavior problems only. Finally, mother's self-differentiation indirect effect on boy's behavior problems only.

Key Words : mother's of self-differentiation, marital conflict, child's behavior problems

I. 서론

아동은 가정, 또래 및 학교로 구성된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자신들의 환경에 적응해 가며,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행동문제를 나타내게 된다(하영희, 2003). 최근 아동의 행동문제는 청소년기 못지않게 날로 증가해가는 추세이며(문화체육부, 2000), 행동문제를 나타내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시기의 행동문제는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발견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권영옥, 1998). 아동의 행동문제는 청년기 이후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쳐(황혜정, 1996; Loeber & Hay, 1997; Pepler, King, & Byrd, 1991) 심각한 부적응 및 행동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어(하영희, 2003, 재인용) 아동기 행동문제의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아동기 자녀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원인으로

가정환경 변인(권영옥, 이정덕, 1998; 양현아, 박영애, 2004; 이민식, 1999; 전연진, 2002; 정문자, 전연진, 김진이, 2004)이나 학교환경 변인(이정운, 이경아, 2004; 하영희, 2003),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구미향, 이양희, 2003; 심희옥, 1997)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가족 구조적 변인인 이혼이 아동의 부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연구가 누적되면서 실제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혼 자체 보다 이혼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부모간의 갈등이며(Kline, Johnston, Tschann, 1991; Jekielek, 1998) 이는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권영옥, 1998; 이민식, 1999; Davies & Cummings, 1994; Fincham, Grych, & Osborne, 1994)으로 보고되고 있다(전연진, 2002, 재인용). 또한, 행동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갈등 상황에서 긴장감, 두려움 등을 경험하는 상태불안이 높고 자신의 불안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이 밝

* Corresponding author: Sang Hee Ha
Tel: 063) 270-3824, Fax: 063) 270-3839
E-mail: sh0522@hanmail.net

혀졌다(노명선, 조수철, 신민섭, 1999).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에서 청소년기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Cummings & Ballard & El-Sheikh, 1991), 아동의 성별에 따라 문제유형에 차이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Grych & Fincham, 1990)으로 알려졌다(이민식, 1999, 재인용). 노명선과 조수철, 신민섭(1999)은 행동문제를 갖는 아동들은 타고난 기질보다 가정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구미향, 이양희, 2003; 노명선, 조수철, 신민섭, 1999; 이민식, 1999; 전연진, 2002)에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Framo, 1975; Grych & Fincham, 1990; Davis & Cummings, 1994). 즉,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를 해치게 되어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Werry와 그의 동료들(1987)도 단지 가정내 부모의 존재유무나 이혼이나 별거 등의 구조적인 요인보다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 부모-자녀 관계 등이 문제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Emery(1982)는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성, 불복종, 행동문제와 같은 외현화 장애나 우울, 불안, 위축 등과 같은 내면화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분화와 관련된 연구(이창만, 1992; 제석봉, 2002; 조은경, 정혜정, 2001; 한미향, 2000)가 수행되고 있다. Bowen 이론의 핵심 개념인 자기분화는 심리내적인 동시에 대인관계적 차원의 개념이다. 정신내적 측면에서 자신의 감정 또는 정서적 충동으로부터 지성 또는 사고가 발달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타인과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말한다(Bowen, 1978; Kerr & Bowen, 1988).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인지각과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정서적 충동에 지배되기 쉽다. 따라서 사소한 상황에서도 부부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며(제석봉, 2002), 결혼생활에서 갈등 및 역기능적 행동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현선, 1994, 전춘애, 1994). Kear(1978), Feigal(1985), Green(1969) 등의 연구에서도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간에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미향, 2000, 재인용).

원가족과 부모의 영향은 아동기를 거쳐 평생을 통해 지속되며, 이러한 점은 이미 여러 가족치료 이론가(Bowen, 1978; Kerr & Bowen, 1988; Satir, 1972)들에 의해 강조되

어온 바이다. 특히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의 대표적 학자인 Bowen은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역기능적 행동은 부모의 분화수준 및 핵가족 정서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하였다(Bowen, 1978; Kerr & Bowen, 1988). 즉, 부모의 자기분화 수준은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 등 핵가족의 정서적 역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녀는 부모가 책임을 맡고 이끄는 핵가족 정서체계에서 부모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므로 원가족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므로 부모의 분화수준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에 관하여 프로이드나 에릭슨과 같은 심리학자들은 동일시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으며(노안영, 강영신, 2006), Rossi와 Rossi(1990)는 어머니-딸의 관계에서 정서적 관계가 강력하다고 하였다. 전연진(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에 의해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이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으나 이와같은 다세대 가족치료이론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남녀 아동기 자녀의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심희옥, 1997; 한미현, 1993; 1995; Holden & Ritchie, 1991)에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과잉행동과 비행, 공격성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갖는 반면, 여아는 미숙함이나 정서불안정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강의, 송혜양, 김중술, 홍경자, 박성수, 198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을 다르게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기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4, 5학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자기보고식 문항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하며, 12세를 기점으로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이 청소년기 행동문제 유형으로 달라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였다(Achenbach, 1991, 전연진, 2002, 재인용). 또한 그들의 어머니를 선정하는 이유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선경, 이재연, 1998)으로 선행연구 결과 밝혀졌으며, 부부갈등도 남편보

다 아내들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은순, 1996; 송말희, 1990; 이미영, 1994)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남아 집단과 여아집단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아들, 어머니-딸의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여 자녀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부부갈등의 직·간접 영향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인과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자기분화로부터 부적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2. 자녀의 행동문제는 부부갈등으로부터 정적영향을 받을 것이다.

2-1. 남아의 행동문제는 부부갈등으로부터 정적영향을 받을 것이다.

2-2. 여아의 행동문제는 부부갈등으로부터 정적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3. 자녀의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자기분화로부터 부적영향을 받을 것이다.

3-1. 남아의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자기분화로부터 부적영향을 받을 것이다.

3-2. 여아의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자기분화로부터 부적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4.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아와 여아집단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동용 질문지는 교실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후 봉투에 밀봉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자녀용과 같은 번호로 되어 있는 어머니용 질문지는 집으로 가져가서 작성한 후 밀봉하여 자녀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였다. 이중 540쌍(1080부)이 회수되어 90%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나, 응답이 누락되거나 부실기재된 것, 아버지가 응답한 자료, 한사람이 모두 기입한 자료 등 104쌍(208부)을 제외한 후 남학생 225쌍, 여학생 211쌍 등 총 436쌍 872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인 남녀초등학생과 그들의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우선 자녀의 성별은 남자 225명, 여자 211명이며, 4학년 203명, 5학년 233명으로 비교적 성별과 학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으로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9.1살이며 36세-40세 사이의 집단이 238명(54.7%)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은 평균 13.9년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집단이 302명(70.6%)로 가장 많았다. 소득 수준은 201만원에서 400만원 이하인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계 소득은 388만원으로 나타나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316만원(통계청, 2006)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2.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는 60.8%인 것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평균 취업률 50.7%(통계청, 2008)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 자료는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4, 5학년 600명과 그들의 어머니 600명 총 1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대상의 선정 절차는 전주시 2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4곳을 덕진구 2개 학교, 완산구 2개 학교로 임의 표집 하였다. 4, 5학년 10학급씩을 선정하여 남·녀 초등학생과 그들의 어머니 60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초등학생 자녀와 그 어머니를 쌍으로 표집해야 하는 연구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자가 학교장에게 직접 설명한 후 교사에게 수집절차 안내문을 배포하여 연구목적과 진행방법 등을 설명한 후 부모용 질문지의 회수를 부탁드렸다.

3. 측정도구

1) 자기분화

자기분화 척도는 정혜정과 조은경(2007)이 개발한 한국형자기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중심적 집단주의 문화를 나타내는 한국인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고, 여러 선행연구들(전춘애, 1994; 제석봉, 1989; Anderson & Sabatelli, 1992; Skowron & Schmitt, 2003)에서 제기된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보완하여 5개의 하위영역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분화 척도의 하위영역은 크게 심리내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정서적반응'과 '자기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적 차원을 나타내는 '타인과 융합'과 '정서적 단절'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융합' 요인은 기존에 Bowen의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Skowron과 Schmitt(2003)가 개발한 DSI-R(Differentiation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변인	구분		변인	구분	
자녀 성별	남	225 (51.6)	자녀 학년	4학년	203 (46.6)
	여	211 (48.4)		5학년	233 (53.4)
모 연령	30-35세	78 (17.9)	결혼 기간	10년이하	17 (4.0)
	36-40세	238 (54.7)		10-15년이하	302 (70.6)
	41세이상	119 (27.4)		15년이상	109 (25.5)
	평균	39.1세		평균	13.9년
결혼 유형	연애	282 (64.8)	월평균 소득	200만원이하	74 (17.0)
	종매	70 (16.1)		201-400만원이하	166 (38.1)
	연애반 종매반	83 (19.1)		401-600만원이하	98 (22.5)
평균	39.1세	600만원이상		98 (22.5)	
결혼 상태	초혼	412 (95.6)	평균	388만원	
	기타	19 (4.4)	종교	유	269 (62.3)
모 교육기간	고졸이하	176 (40.7)		무	163 (37.7)
	고졸이상	256 (59.3)	직업	유	265 (60.8)
	평균	14.1년		무	171 (39.7)

* 무응답자를 제외한 백분율임

of Self Inventory-Revised)척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인으로 심리내적인차원과 대인관계차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개인의 정서체계가 타인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가족중심적 집단주의 문화를 나타내는 한국인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정혜정, 조은경, 2007).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반응,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의 점수를 역점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어머니의 자기분화 척도의 전체 Cronbach's $\alpha=.90$ 로 나타났으며, 심리내적 차원의 Cronbach's $\alpha=.81$, 대인관계차원의 Cronbach's $\alpha=.80$, 심리내적인 요인과 대인관계차원이 합쳐진 정서적 융합의 Cronbach's $\alpha=.83$ 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는 .69 ~ .84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2) 부부갈등

부부간의 갈등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Jeon(1994)이 개발하고 번역한 결혼갈등척도(Marital Conflict Inventory)를 전연진(2002)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 보완한 척도에서 직·간접적 갈등표현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배우자에게 한 행동을 평가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부부갈등이 빈번하고 심한 갈등

유형을 나타낸다. 부부갈등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 로 나타났다.

3)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2007)가 Achenbach와 Edelbrock(1983),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기초로 변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의 자기보고형척도(K-YSR)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내면화 문제와 외면화 문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내면화 행동문제는 위축, 신체화 증상, 우울불안 등 심리내적인 문제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면화 행동문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로 나타났다. 외면화 행동문제는 비행, 공격성 등 행동으로 표출되는 문제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면화 행동문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자주 그렇다' 2점까지의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문제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을 통

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6.0과 AMOS 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기 전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기분화, 부부갈등, 자녀의 행동문제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평가는 χ^2 값과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AGFI, GFI, CFI, TLI, RMSEA값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AGFI, GFI, TLI, CFI 값은 .90을 넘으면 좋은 모형으로 판단되며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고려되는 RMSEA값은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며, .09 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5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시키고, .01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어머니집단과 자녀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어머니-아들, 어머니-딸의 모형을 각각 검증하고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자기분화와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어머니와 자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측정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으며, 구체적인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남아집단의 경우 전체적인 행동문제와 전체 자기분화 간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문제와 부부갈등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들의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특히 외현화 문제보다 내면화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행동문제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문제와 관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집단의 경우 전체적인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부부갈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자기분화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모두 부적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자기분화와는 $r=-.51$ 로 부적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자녀 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이론적 모형의 검증은 상관행렬자료를 기초로 최대우도법에 의한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아집단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는 χ^2 이 71.1이고 유의수준이 매우 낮은 것($p<.00$)으로 나타났으며 CFI=.90,

<표 2> 어머니와 자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남아(n=225)			여아(n=211)			부부 갈등 (n=436)
		내면화	외현화	전체	내면화	외현화	전체	
자기 분화	정서적반응	-.11	-.02	-.08	-.05	-.07	-.06	-.49***
	자기입장	-.03	.02	-.02	.03	-.06	-.02	-.11***
	정서적단절	-.22**	.02	-.13*	-.06	-.09	-.08	-.30***
	타인과의융합	-.14**	-.05	-.12*	-.07	-.09	-.09	-.54***
	정서적융합	-.20**	-.02	-.12*	-.12	-.08	-.12	-.37***
	전체	-.20**	-.01	-.13*	-.09	-.11	-.10	-.51***
부부 갈등		.26***	.19**	.26***	.04	.09	.01	1.00

$p^* < .05$, $p^{**} < .01$, $p^{***} < .001$

RMSEA=.12, TLI=.84로 적합도가 좋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아집단의 경우도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는 χ^2 이 66.9이며 유의수준이 매우 낮은 것($p < .00$)으로 나타났으며 CFI=.89, RMSEA=.11, TLI=.82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수정을 고려하였다. 이론적 모형의 수정은 가설모형의 분석결과 산출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근거로 검토하여야 하지만, 수정의 근거는 이론적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배병렬, 200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Bowen의 이론적 개념(Kerr & Bowen, 1988)과 Skowron과 Friedlander(1998)의 DSI와 Skowron과 Schmitt(1998)의 DSL-R 등에서 분류한 자기분화 하위영역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정서적 반응과 자기입장을 심리내적인 차원으로,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 융합을 대인관계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한국형 자기분화척도의 고유한 변인으로 나타난 정서적 융합을 심리내적인 차원과 대인관계적 차원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정혜정, 조은경, 2007)으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을 분류하였다.

이와같이 이론적 모형을 수정하여 수정 모형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매우 향상되어 수정 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매우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으며 수정모형의 검증에 위한 상관행렬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1) 남아집단 모형의 검증

어머니-아들로 구성된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대한 결과로 먼저 χ^2 이 11.8이고 유의하지 않은 것($p > .05$)으로 나타났으며 GFI=.98, CFI=.99, RMSEA=.06으로 적합도는 매우 좋은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남아집단의 어머니-아들 구조모형의 구조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고, 결과는 [그림 1]과 같으며, 각 구조경로계수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전체효과 분석은 <표 5>와 같다.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자기분화로부터 부적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1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행동문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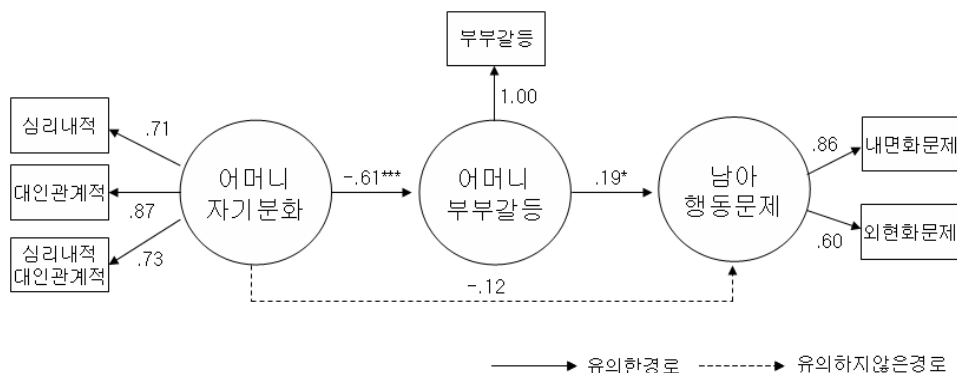
<표 3> 이론적 모형과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χ^2	df	p	GFI	CFI	AGFI	RMSEA	TLI
남아 집단	이론적모형	71.1	18	.00	.92	.90	.85	.12	.84
	수정모형	11.8	7	.11	.98	.99	.95	.06	.97
여아 집단	이론적모형	66.9	18	.00	.92	.89	.85	.11	.82
	수정모형	7.7	7	.36	.99	.99	.96	.02	.99

<표 4> 남아집단 수정 모형의 구조경로계수

잠재변수간의 구조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z값
어머니 자기분화 → 부부갈등	-.70	.08	-.61***	-8.45
어머니 부부갈등 → 아들 행동문제	.10	.05	.19*	2.20
어머니 자기분화 → 아들 행동문제	-.07	.06	-.12	-1.32

$z > \pm 1.96$



[그림 1] 어머니-아들 수정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표 5> 남아집단 수정 모형의 전체효과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어머니 자기분화 → 부부갈등	-.61	×	-.61
어머니 부부갈등 → 아들 행동문제	.19	×	.19
어머니 자기분화 → 아들 행동문제	-.12	-.12	-.24

어머니의 부부갈등으로부터 정적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1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행동문제에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도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남아집단의 어머니-아들 모형의 전체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부갈등은 아들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아들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행동문제에 있어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여아집단 모형의 검증

어머니-딸로 구성된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대한 결과는 먼저 χ^2 이 7.7이고 유의하지 않은 것($p > .05$)으로 나타났으며 GFI=.99, CFI=.99, RMSEA=.02로 가장 좋은 적

합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아집단의 어머니-딸 구조모형의 구조경로계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고,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각 구조경로계수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전체효과 분석은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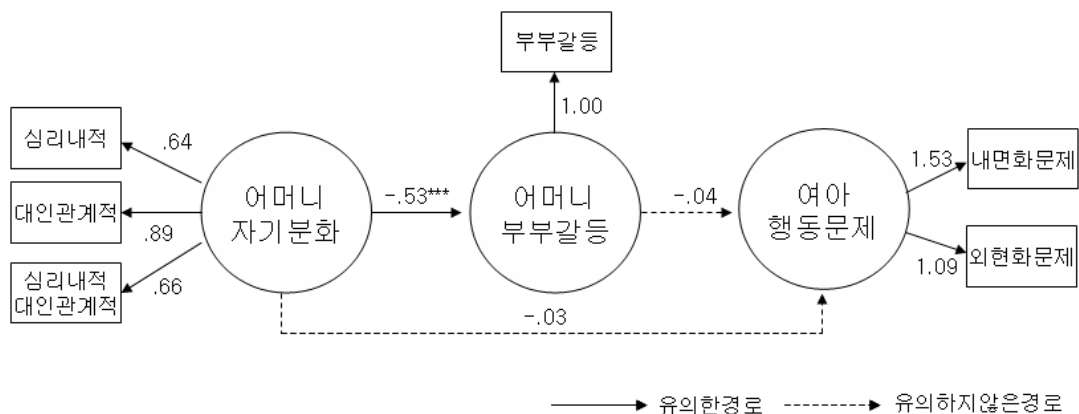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자기분화로부터 부적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1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의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부부갈등으로부터 정적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2-2는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딸의 행동문제에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2도 지지되지 않아 남아집단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여아집단의 어머니-딸 모형의 전체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갈등은 딸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딸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적인 영

<표 6> 어머니-딸 수정 모형의 구조경로계수

잠재변수간의 구조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z값
어머니 자기분화 → 부부갈등	-.81	.12	-.53***	-6.68
어머니 부부갈등 → 딸 행동문제	-.07	.04	-.04	-1.79
어머니 자기분화 → 딸 행동문제	-.08	.06	-.03	-1.30

$z > \pm 1.96$



[그림 2] 어머니-딸 수정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표 7> 여아집단 수정 모형의 전체효과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어머니 자기분화 → 부부갈등	-.53	×	-.53
어머니 부부갈등 → 딸 행동문제	-.04	×	-.04
어머니 자기분화 → 딸 행동문제	-.03	.02	-.01

향력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딸의 행동문제에 있어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직·간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아집단과 여아집단간 모델 차이검증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아와 여아집단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4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이란 모델에서 한 집단의 모수추정치와 다른 집단의 모수추정치와 동일한지 검증할 때 사용하는 통계분석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구조경로계수가 서로 동일한지 아니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델의 적합도 분석결과 χ^2 이 19.5이고 유의하지 않은 것($p > .05$)으로 나타나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의 경로계수가 두 집단에 걸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델 각각의 구조경로계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남아집단과 여아집단 모델에 나타난 3개의 구조경로계수의 χ^2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자유도(df)가 1만큼 증가할 때 χ^2 변화량이 3.84이상으로 나타나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로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경로에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아집단과 여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남아집단과 여아집단,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두 세대를 대상으로 아동기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부부갈등의 영향력을 이론적인과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이 남아집단과 여아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 5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남아 225쌍과 여아 211쌍 총 436쌍 872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 앞서 기초분석으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남아집단과 여아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고, 남아집단과 여아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자기분화로부터 부적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이는 부부갈등과 자기분화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들(금온순, 1996; 김현주, 2005; 이창만, 1992; 조은경, 정혜정, 2002; 한미향, 2000)과 같은 결과이며, 자기분화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간에 갈등이 더 많으며 심리적 역기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Feigl(1985), Green(1969), Kear(1978), Nelson(1987) 등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한미향, 2000, 재인용). 즉, 자기분화는 부부

<표 8> 남아와 여아 문제행동 모델간의 차이검증

변인	개별 표본분석의 경로계수		$\chi^2(df)$	$\Delta\chi^2(\Delta df)$
	남아	여아		
어머니 자기분화 → 부부갈등	-.70	-.81	29.837(19)	0.010(1)
부부갈등 → 자녀 행동문제	.10	-.07	21.633(19)	8.304(1)*
어머니 자기분화 → 자녀 행동문제	-.07	-.08	26.880(19)	3.057(1)

$\Delta\chi^2 > \pm 3.84 = p^* < .05$

개별 표본분석의 경로계수 = 비표준화 추정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강한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의 실제에서 자기분화의 요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아들과 딸 모두에게 세대전이가 되고,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결과(하상희, 정혜정, 2008a; 2008b) 밝혀져 어머니의 자기분화수준은 건강한 가족체계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분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남아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부부갈등으로부터 정적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집단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집단과 여아집단간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부부갈등으로부터 남아와 여아가 다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부갈등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높게 지각하여 행동문제로 이어진다는 권영옥(1998)과 이민식(199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최근 세대전이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모두 살펴본 하상희와 정혜정(2008a)의 연구에서 아들의 경우 어머니의 원가족 건강성으로부터 직·간접 영향을 모두 받았지만 딸의 경우 어머니의 원가족 건강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어머니의 자기분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남아는 어머니의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여아의 경우 부부갈등이 직접적으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등에 영향을 미친 후 행동문제가 발생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Kelly(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출생 후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양육태도나 성역할태도가 달라져 자녀를 다르게 대하게 되며, 특히 아들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 갖는다(임정빈, 정혜정, 1997).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간의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의 영향력의 차이는 부모의 성별 요인과 자녀의 성별요인이 모두 투입되고 부모자녀간의 상호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을 투입하여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모두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집단의 경우 부부갈등을 통한 간접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집단의 경우 직·간접 영향력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

녀의 정서적 건강에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김현주(2005)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며, 가족내의 어떠한 하위체계보다 어머니-딸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감이 가장 강력하다고 한 Rossi와 Rossi(1990)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동성인 여아집단보다 아들인 남아집단에서만 영향력이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에서 모자관계가 갖는 의미를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근 Bowen의 다세대 전수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전연진, 2002; 정문자, 전연진, 김진이, 2004; 하상희, 정혜정, 2008b)되면서 부모의 자기분화는 자녀의 자기분화로 세대간 전이가 이루어짐이 검증되고 있는데, 어머니-딸 관계보다 어머니-아들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직·간접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양육태도나 사회화과정을 달리하고 남아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에서 남성중심적으로 원가족문화가 전수되고 있으므로 어머니-아들의 유대관계가 밀접해질 수 있다. 또한 여아의 경우 관계 중심으로 사회화되어왔기 때문에 부부갈등 자체의 영향보다 부부갈등이 가족의 건강성이나 훈육태도 등에 영향을 미친 후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의한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원가족 건강성이나 의사소통, 양육태도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주시 2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 5학년 남녀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아동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또한 무작위 표집한 초등학교 소재지의 지역이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해석 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둘째, 최근에 개발된 한국형 자기분화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한국형 자기분화척도의 고유한 영역인 정서적융합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기분화가 부부관계에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임은 선행연구(권정란, 2006; 전춘애, 1994; 조은경, 정혜정, 2001)결과 검증이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분화 척도의 정서적 융합 하위영역은 아직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기존의 하위영역보다 부부갈등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내며, 자녀의 행동문제와도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정서적 융합의 개념은 관계성과 연결성을 중시하는 가족중심적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개인의 정서

상태가 관계나 타인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는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자기분화 요인(정혜정, 조은경, 2007)이므로 앞으로 많은 후속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시기의 한 시점만을 한정하여 횡적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이들의 성장시기를 종단적으로 관찰하여 그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본다면 자녀들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분화를 측정할 수 있다면 어머니 자기분화의 영향력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형 자기분화척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로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분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와같은 도구의 개발은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의 경로와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아동행동문제, 부부갈등, 자기분화

참 고 문 헌

- 고현선 (1994)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71-83.
- 구미향, 이양희 (2003) 아동기 두려움과 행동문제의 특성 및 관련성 탐색. *초등교육연구*, 16(1), 341-363.
- 권영옥 (199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정란 (200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금은순 (1996)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5)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주부의 개인적 성장, 자아분화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명선, 조수철, 신민섭 (1999) 행동문제 원인의 구조적 모델에 관한 연구-행동문제, 우울, 불안, 가정환경, 자기개념, 결음마기 기질의 관계. *소아·청소년의학*, 10(1), 3-14.
- 노안영, 강영신 (2006)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문화체육부 (2000) 청소년 백서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송말희 (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과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37.
- 심희옥 (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응울 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안경숙 (1993) 아동의 스트레스와 행동문제 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현아, 박영애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생활과학회지*, 13(6), 847-860.
- 오경자, 이혜련 (1990) 한국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증후군 연구1. 4-5세, 6-11세, 12-16세, CBCL 자료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9(1), 33-35
-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척도. 서울:휴노컨설팅
- _____ (2007)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휴노컨설팅
- 오청미 (2004)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 (1994) 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 및 대응행동 분석-전화상담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식 (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이선경, 이재연 (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창만 (1992)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정혜정 (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신정
- 전연진 (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춘애 (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문자, 전연진, 김진이 (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42(2), 133-150.
- 정혜정, 조은경 (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9-46
- 조은경, 정혜정 (200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수준과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20(1), 1-16.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
- _____ (2002) 자아분화와 부부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3(1), 171-184.
- 하상희, 정혜정 (2008a)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상담학연구*, 9(2), 789-806.
- _____ (2008b)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7), 게재예정
- 하영희 (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 한미향 (2000)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1993)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4.
- 한미현 (1995)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강의, 송혜양, 김종술, 홍경자, 박성수 (1988) 아동행동목록에 의한 국민학생의 행동문제 조사. *신경정신의학*, 27(3), 346-359.
- Achenbach, T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M, Edelbrock, CS (1981) Behavior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1), Serial No. 188.
- Achenbach, TM, Edelbrock, C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nderson, SA, Sabatelli, R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77-89.
- Bowen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Davis, PT, Cummings, E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mery, R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86, 574-595.
- Framo, JL (1975) Personal reflections of a therapis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ling*, 1, 15-28.
- Grych, JH, Fincham, F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olden, GW, Ritchie, K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Jeon, HJ (1994)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adjustment in korean couples: Influences of attachment style, marital comparison, and motivations.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Kelly, JB (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8), 963-973.
- Kerr, ME,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and London: Norton Company.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역(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 Rossi, AS, Rossi, PH (1990) *Of human bonding*. NY: Aldine de Gruyter.
- Satir (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kowron, EA, Friedlander, ML (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29-237.
- Skowron, EA, Schmitt, TA (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 sub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9, 209-222.
- Werry, JS, Reeves, JC, Elkind, GS (1987) Attention deficit, conduct, oppositional, and anxiety disorder in children: A review of research on differ on differentiation characteristic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6(2), 133-143.
- 통계청(2008). www.nso.go.kr
(2008. 5. 3 접수; 2008. 7. 10 채택)

<부록>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의 상관행렬

딸	아들	어머니 자기분화			어머니 부부갈등	문제행동		평균	표준 편차
		심리내적	대인관계	심리내적+ 대인관계		내면화	외현화		
어머니 자기 분화	심리내적		.61	.51	-.44	-.09	.00	2.86	.62
	대인관계	.57		.64	-.53	-.22	-.02	3.15	.77
	심리내적 +대인관계	.41	.60		-.44	-.20	-.02	1.98	.62
	어머니 부부갈등	-.40	-.47	-.30		.26	.19	.75	.52
문제 행동	내면화	-.03	-.08	-.12	.04		.52	.45	.27
	외현화	-.07	-.11	-.08	.09	.57		.46	.23
	평균	2.86	3.23	2.15	.74	.51	.40		
	표준편차	.64	.77	.61	.61	.31	.20		

아들 = 225명 딸 = 211명